

세계태권도대회가 '효자네!'

스낵바·푸드빌리지 등에서 무주 맛·멋·정성 전하며 소득 창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권도원에서 선수와 관객들의 인기를 달라고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 스낵바와 푸드빌리지가 군민들에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1경기장 앞에서 토스트와 꼬치, 떡볶이, 닭강정, 튀김과 호두과자, 씨앗호떡이 판매되고 있는 스낵바에는 관내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8일까지 4,27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과 꼬치, 과일 컵 등을 판매하고 있는 다모아(다문화가족) 부스에서 일하고 있는 미첼엘 마티네스(36세 필리핀)는 "덥고 힘들기도 하지만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보람있다"며 "남아 있는 시간 정성을 다해서 대회 성공에 기여하고 또 무주를 찾아온 183개국 선수와 손님들에게도 큰 힘이 돼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 부스에서는 매시간 경기를 마치고 나온 선수들과 응원을 마치고 나온 관람객들이 줄을 서 간식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며, 부스 옆에 마련된 휴식공간에서는 줄을 서서 산 음식들을 나누며 쉬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식사를 위해 마련된 푸드빌리지에도 지역 업체 11곳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장

일점씩 있으며 불고기백반과 김치찌개와 잔치국수와 산채비빔밥 등 한식부터 피자과 햄버거 등을 판매해 28일까지 1억 7,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조합공동법인 등 12개 업체가 참여해 벌꿀과 블루베리, 천마, 머루와인, 사과 등을 판매한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도 2,000여만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로 가는 축제에는 5일 간 내 외국인인 모두 포함해 2,860여명이 참여해 3,8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무료로 운영된 반딧불이 생태체험관과 투어버스를 이용한 방문객들은 총 3,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에서 온 요시오 나카쿠라 선수는 "경기장 바로 앞에 오며가며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도 많고 식당도 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과 어울려 다녔다"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도 영광이지만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체험도 많이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대회가 개막한 24일 무주를 남대천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락페스티벌과 반딧불장터에서 진행된 반딧불 야시장은 1,600여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야시장은 420여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하쿠나마타타' 공연 성료

국악+아프리카 문화체험

지난 28일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국악과 아프리카 문화체험이 결합된 '하쿠나마타타' 공연이 군민 250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전 객석에 쟈베를 세팅하여 관객이 직접 쟈베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여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었다.

군민들의 문화수준에 부합하고자 질 높은 공연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공연 1시간 전부터 공연장 밖 계단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군 관계자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객석을 가득 메우고 통로까지 채울 만큼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채롭고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 수료

관내 영농조합법인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종사자들과 사회적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7년 무주군 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가 지난 28일 수료식을 가졌다.

사회적기업 양성 아카데미는 무주군이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것으로, 30여 명이 전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제도, 지원정책을 비롯해 소셜마케팅과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 회계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내달 7일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희망



공동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으로, 군은 컨설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가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6건 지정

성피·합미·가막리·환미 산성, 삼우당터, 솔내옹기요

진안군은 29일 6건의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성피산성, 가막리산성(천반산성), 합미산성, 환미산성, 삼우당터 등 기념물 5건과 솔내옹기요 등 민속자료 1건이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진안의 향토문화와 풍속을 연구함에 있어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들로,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됐다.

기념물로 지정된 성피산성과 합미산

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삼국시대 진안의 행정구역명인 난잔아현과 마동현의 치소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가막리산성(천반산성)과 환미산성은 삼국시대 축조된 산성으로 가막리산성의 경우 조선시대 정여립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삼우당터는 1906년 면안 최익현의 태인의병(병오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진안 출신 독립운동가 승재 최제학의 부친 삼형제가 거주하던 터로, 최익현과 최제학 등이 의병의 거사를



성수면 도토리 삼우당 터

모의하던 곳으로 진안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속자료로 지정된 솔내옹기요는 1960년대 초반 조성된 근대요업시설로,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57호 진안고원형옹기장이 전통방식으로 옹기를 생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기본원리와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4년부터 전면시행된 도로명주소를 생활속의 도로명주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녀나 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의 과학성과 편리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계획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생성규칙,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설정기준, 도로명주소 표기법, 도로명판 보는방법, 위급상황시 도로명주소 활용법 등이다. 교육내용과 연계한 도

로명주소 퀴즈 맞추기는 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는 평가이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면 도로의 폭과 건물출입구의 위치 및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그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급상황시 사고지점 위치주소로 활용하면 위치추적이 용이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군은 주민 모두가 도로명주소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알고 생활속의 도로명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법제 전문가 원스톱서비스 교육

장수군은 지난 28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장수군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제 전문가 원스톱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법제 전문가 원스톱서비스교육은 중앙부처의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신호 등 체계 도입 등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에 관한 장수군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백중운(법제처에서 전라북도에 파견된 법제협력관) 강사가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에서 필요한 입안 기본방침 및 작성 방법, 입안 기준 및 작성 원칙과 ▲입안 관련 질의 및 응답으로 마련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 농협 '행복이음패키지' 등 참

NH농협 진안군지부와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은 29일 진안군청을 방문, 이항로 군수에게 '행복이음패키지'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업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농협 상호금융에서 개발한 '행복이음 패키지'는 가뭄, AI, 우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소외계층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농업인과 일반 고객을 더 배려하고 헤아림과 동시에 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포근하고 따뜻한 금융상품이다.

농협에서는 이 상품의 판매금액에 비례해 '아름다운 동행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고객에게 최대 3.0%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소득증대 상품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원주 친환경 전문퇴비공장 준공

원주군이 친환경 전문퇴비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29일 원주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축순환센터 내 신규시설로 8,737㎡의 부지에 연면적 3,644㎡ 규모의 친환경 전문퇴비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은 유럽의 선진 악취 저감장치를 도입했으며, 연간 친환경퇴비 20만 포/20kg를 생산 공급한다.

친환경 농축 순환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친환경 전문퇴비공장 준공은 농림부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 등의 운영현황 등을 평가해 내려진 보완사업이다.

이번에 친환경 전문퇴비공장이 가동되면서 원주가 향후 친환경농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